

<p>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p> <hr/> <p>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h1 style="font-size: 4em; margin: 0;">새고려신문</h1> <p>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2017년 10월 27일(금) (음력 9월 8일) Пятница 27 октября 2017 г. № 42(116759)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p>
--------------------------------------------------------------------------------------------------	--------------------------------------------------------------------------------------------------	--------------------------------------------------------------------------------------------------------------------------------------------



▲ 김장철이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장.

(이예식기자 촬영)

## 단신

### 유즈노사할린스크 신공항 단지 건설 착공식

지난 23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 신공항건물 착공식이 있었다. 착공식에는 공항, 주청 회사, 주정부, 협력회사 등 대표들이 참가했다. 건설될 3층의 공항종합단지의 총면적은 약 4만m<sup>2</sup>이다. 터미널은 1시간당 국내선 승객 550명, 국외선 승객 250명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공항은 현 공항건물의 북쪽에 공사가 이뤄지며 완공은 2019년 가을로 계획하고 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와 쿠릴의 총주교 치혼은 착공식에 앞서 미래세대에게 사할린의 발전전략을 요청하는 글이 담긴 기념캡슐을 헌납하는 예식을 진행했다.

### 2020년까지 사할린주 인구 3000명 증가

지난 25일(수)에 있는 주정부 회의에서 주경제개발부 알렉세이 우스펜스키 장관 대행은 2018-2020년간 사할린주 사회경제발전 예측에 대해 보고했다. 예측은 주로 러시아연방 경제부의 작성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2019년까지 인구 통계학적 지표와 관련해 투자계획 실시 조건 속에, 해외동포 정착 조치 등으로 이민자 수가 증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근로 능력이 있는 연령의 주민들의 사망률을 낮추는 조치가 필요하다.

2020년까지 평균 기대수명은 72세로 예상된다. 경제개발부 추정으로는 2020년에 사할린주의 인구는 49만명이 될 것으로 보고 2016년보다 3000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 사할린 세관, 9개월 사업 총결

러시아 세관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지난 24일(화)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사할린 세관 지도부는 2017년 9개월간의 사업을 총결한 가운데 결산은 고정된 수치를 보였다고 발표했다. 사할린주 9개월간 대외무역 유통액은 47억 달러(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12억천만 달러 증가)에 달했다. 각종 화물 1300만 톤, 선박 2500척과 20만500여 명이 국경을 통과했다. 사할린지역 회사들의 주요 무역상대국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국가들로 이들의 유통액은 41억달러 달했다. 수출구조에서는 액화천연가스가 77%, 수입구조에서는 개인적 자동차 수입으로 기계와 장비 수입이 큰 부분을 차지했다.

### 주한인회, <한 가정에서> 기획으로 여러 행사 실시

사할린주한인회는 봄부터 <한 가정에서>란 기획을 실시하고 있다. 이 기획의 일환으로 이미 지방공연도 했고 학생들을 위한 콩쿠르도 진행했다. 27일(금) 17시 30분 새고려신문사 이예식 기자의 <사할린한인: 귀환> 사진전, 28일(토) 13시 미주호(포자르스코예)촌 부근 27인 한인피살자 추념비에 대한 동영상(제작 홈스크 팀) 상영, 11월 초에는 <전래 동화> 주제로 그림 그리기 콩쿠르 발표·시상식이 있을 예정이다. <한 가정에서> 기획의 일환으로 펼쳐지는 이 모든 행사는 사할린 한인문화센터에서 진행된다고 사할린주한인회 측이 전했다.

## 9개월간 사할린의 총생산액은 660여 억 루블리

지난 24일(화) 사할린주 정부 회의에서 올레그 코제마코 주지사는 현재 사할린지역의 경제지표는 양호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2017년 1월-9월 간 사회경제개발 총결산에 따르면 지역 총생산액은 6630억 루블리를 넘었다. 이는 작년과 유사한 기간에 비해 102.3%에 달하고 산업 생산량은 5540억 루블리(작년에 비해 104.2%)에 달했다.

1인당 고정 자산(토지, 건물, 차량, 기계 등) 투자 측면에서는 사할린주가 극동연방구에서 1위를, 전국에서는 5위를 차지하여 야쿠치아 보다 2.2배, 하바롭스크변강보다 5배, 프리모리에보다는 8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할린의 사업시행 부분에서는 노후주택으로부터 신주거지로 이전 극동지역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건축된 주택은 20%에 해당되었다. 이 지표로 사할린지역은 2위를 차지했고 주택 운용과 인구는 선두에 섰다. 실업률은 0.7%로 기록, 극동지역에서 가장 낮은 지표로 나타났다.

분야별 경제지표를 보면 사할린주에서 석탄 채취량은 거의 1.5배 증가된 600만 톤에 달했고 축산업 분야에서 육류와 우유의 생산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며 양돈과 소사육의 마릿수는 거의 2배로 증가, 양계는 60% 증가했다고 주지사는 덧붙였다.

(주정부 자료에서)

## 4년간 사할린주에서 의사 500명 고용

사할린주 의료기관 인력 확보 프로그램 실시에 따라 2020년까지 중간 결산이 발표했다. 이 기간 동안 의사 800명, 간호사 1500여 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의료진 지원 기본정책은 집무실 건물과 장비에서 72만5000루블리부터 130만루블리까지의 지원금으로 시행하여 이미 많은 인력을 유치할 수 있었다. 4년이 안되는 동안 이미 의사 500명을 채용했다.

현재 지역 의료기관의 취업 희망자들로부터 매일 신청이 접수되고 있다. 올해는 의과대학의 고등과정을 마친 전문가들 100명과 채용계약 맺었다. 한 예로 주 중심의 아동병원에서는 의사 9명이 채용되었다. 그중 소아과 의사 4명, 이비인후과 의사 2명, 안과 의사 2명 산부인과 의사 1명이다.

사할린 의료진 확보에 따른 프로그램에는 젊은 의료전문인들을 비롯해 경험이 많은 의료진까지를 고려했다. 이렇게 중앙 구역병원 2곳의 원장들은 크라스노다르 출신이며 채용된 의료진들 중에는 의학아카데미 학위 소유자와 전문가들도 있다.

"지역 의료계 인력확보 프로그램에 따른 지원조치는 모든 지역 의료전문가들의 관심을 모았다. 서류상만으로는 자격 입증이 어려우므로 올해부터 각 의료전문인들은 6개월의 시험과정을 거쳐 얼마만큼 의료전문가들로서 전문적 관점을 가지고 실력을 다 발휘했는지 결론을 내리게 된다. 사할린에는 숙련되고 개발 지향적인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우리는 부적절한 의료진들은 후회없이 보낸다. 이러한 시험대를 거쳐 15명이 탈락했다."고 사할린주보건부 박 알렉세이 장관은 말했다.

올해부터 사할린 의료계 인력확보 프로그램의 새로운 시행 조치로 간호사들의 연봉을 60만 루블리까지 받을 수 있도록 고려했다. 이런 조치로 산부인과 간호사와 응급진료소 직원의 부족 현상을 줄일 수 있었다고 사할린주정부 홍보실은 전했다.

## 새고려신문

## 2018년 신문주문 시작!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8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6개월 구독료는 476루블리 28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53740입니다. (본사 편집부)

지난 21일(토) 블라디보스토크 <현대>호텔 회의실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블라디보스토크협의회 출범식이 개최되었다.

공식 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우수리이스크고려인문화센터 소속 아티스트들이 부채춤, 북공연, 백조춤을 선보였다.

국가에 대한 경례, 애국가 부르기,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순서가 있는 이후 자문위원 위촉장, 간부위원 임명장, 고문 위촉장 수여가 있었다. 주블라디보스토크 대한민국총영사관 이석배 총영사는 이날 재외국민 17명에게 제 18기 민주평통 자문위원 위촉장을, 사할린 한인 5명(박순옥, 김홍지, 오진하, 김춘자, 배 워토리아)을 포함해 러시아 동포 27명에게 민주평통 블라디보스토크협의회 고문 위촉장을 수여하고 블라디보스토크협의회 지도부에게도 임명장을 수여했다.

개회사를 한 이경종 블라디보스토크협의회 회장은 "통일은 나누어진 것을 합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나누어진 채로 살아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다시 합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나누어진 나라가 그렇습니다."라며 "우리는 통일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 연해주와 극동 러시아는 이런 통일을 위해 이야기하고 모이기에 가장 좋으며 또한 중요한 곳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통일과 한반도의 평화로운 통일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갑시다..."라고 강조했다.

### 제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블라디보스토크협의회 출범식

## 한반도의 평화로운 통일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이경종 회장은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환영하면서 멀리 캄차트카, 마가단, 사할린, 하바롭스크 등지에서 온 데에 대해 감사를 드렸다.

18기부터 러시아(모스크바지역협의회와 블라디보스토크협의회)는 유럽 협의회에 속한다. 블라디보스토크협의회 출범식에 오스트리아에서 찾아온 박종범 유럽협의회 부회장은 많은 조언을 한 가운데 "특히 살고있는 지역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여론조성과 평화통일에 필요성을 주류 사회에 지속적으로 알리야 할 것입니다. 남북통일에는 주변사회의 지지와 신뢰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자라고 있는 자녀들에게 분단의 아픔과 통일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면서 "저는 앞으로 민주평통유럽지역회의의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통일에 관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

이석배 블라디보스토크주재 대한민국 총영사는 2년 전에 러시아 연해주, 북한 국경이 있는 곳, 하산을 다녀간 적이 있다면서 하산역에서 두만강을 볼 수 있었는데 건너갈 수가 없다고 하였다.

"하산에서 돌아오는 길에 '분단의 역사와 분단의 기간이 너무도 길어서 이제는 분단이 일상의 정서로 포착되어가는 일



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다. 통일은 우리 민족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염원입니다. 저희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지속해 나가면서 그리고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문제와 한반도 평화 안전에 있어서 러시아의 역할을 얘기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러시아는 그 동안 북한 핵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저희 정부는 앞으로도 러시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과 함께 한반도의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라고 이석배 총영사가 강조했다.

이날 민주평통 사무처 전남경 위원활동지원국장, 아르쥬시 전광근 부시장, 윤창현 지상시협

의회 회장, 우중철 연해주선교사협의회회장 등의 축사도 있었다.

제18기 민주평통 활동방향 보고는 김석순 사무관이 했다. 그는 자세히 민주평통의 의의와 구조를 설명하고 활동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출범식 참석자들은 이날 "우리가 함께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동영상을 관람하고, 민주평통 상임위원인 김용현 동국대 교수의 "새 정부의 평화통일정책의 추진방향"이란 주제 강연을 주의깊게 들었다. 특강 강사는 이날 많은 질문에도 답했다. 출범식 내용이 중요하다 보니 행사는 계획한 것보다 1시간 더 연장되었다.

공식부분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참석자들의 합창으로 막을 내렸다.

(배순신 기자)

#### 민주평통자문회의의 창설 배경

"자문회의는 시대적 여건에 따라 역할과 위상의 차이가 있어왔으나 평화통일이라는 일관성 있는 대원칙 아래 통일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헌법기관으로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민의 통일의지와 역량을 결집하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하는 시대적 상황과 국민적 여망으로 인해 1980년대 초반에 범국민적 통일기구로 설립되었습니다. 특히 다변화하는 주변국의 정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통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초당적·범국민적 차원에서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나가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민주평통 사이트에서)

## 이모저모

### 아이누문화 일본연구가 향토박물관 방문

10월 22-23일 홋카이도(일본)의 여러 연구센터의 연구가들이 사할린주 향토박물관을 방문했다. 연구가들은 아이누 문화연구센터 마사히토 오가와 센터장, 사할린 아이누족 역사·문화 연구가 마사토 타무라, 문화인류학자이며 아이누 문화연구가인 지로타키타하라(홋카이도 대학교)다. 전 가라후토 청의 주민이었던 아이누 여성인 요호 아베는 어린 시절을 보낸 곳(레스노에 마을)을 찾기 위해 이들과 함께 사할린섬을 방문했다.

이들 일본 연구가들은 아이누 역사와 문화에 권위 있는 학자들로서 주향토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문서와 자료에 큰 관심을 가졌다.

박물관 직원들과 만남 과정에서 1935년 일본의 학자였던 쿠보제라와 킨다이찌가 전 가라후토 청 시기 아이누 마을에 대해 제작한 영상 중 단편을 상영하고 그 시기의 니이토이(포로나이스크구역 노위에 마을), 오찌호(코르사코브구역, 레스노에 마을), 타란도마리(홈스크구역 칼리니노)의 사진도 관람했다.

이 자료들의 원본은 현재 홋카이도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고 사할린 향토박물관에는 이 자료들의 사본과 아이누연구에 대한 간행물들이 전해졌다.

#### 일본ские исследователи айнской культуры побывали в краеведческом музее

22-23 октября Сахалинский областной краеведческий музей посетили ученые из разных научных центров Хоккайдо (Япония): директор Центра изучения айнской культуры Огава Масахито, исследователь истории и культуры айнов на Сахалине Тамура Масато, культуролог, исследователь айнской культуры (Университет Хоккайдо) Китахара Джирота. Вместе с ними на остров Сахалин прибыла айн-

ка, бывшая жительница губернаторства Карафутто Абе Ёко, чтобы посетить место, где провела детство (село Лесное).

Японские ученые входят в число ведущих исследователей истории и культуры айнов.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большой интерес для них представляют документы и материалы, хранящиеся в фондах областного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В ходе встречи с сотрудниками музея японские коллеги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отрывки из фильма об айнских деревнях периода губернаторства Карафутто, снятого в 1935 году учеными Кубодэра и Киндайти, а также фотографии того же периода поселков Ниитой (Новое, Поронайский район), Отихо (Лесное, Корсаковский район) и Тарандомари (Калинино, Холмский район).

Оригиналы данных материалов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хранятся в музее Хоккайдо, в фонд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были переданы их копии, а также ряд публикаций по исследованиям айнов, сообщает музей.

### 사할린 댄스팀, 모스크바 국제 경기에서 은상 따내

세계 댄스 스포츠 연맹 오픈 시리즈 경기 조성의 일환으로 <지나미야다 - 2017> 정례 국제 댄스 스포츠 경기가 모스크바에서 막을 내렸다. 경기는 세계 댄스 스포츠 연맹의 주최로 진행되었다.

사할린 지역을 대표해 <댄스 클래스>클럽의 야코브 프레드코와 폴리나 아스타호와가 경기에 출전했다.

사할린의 댄스 커플은 2번 결승전에 출전하여 유럽 프로그램에서는 4위를 차지하고 라틴아메리칸 프로그램에서는 2위를 차지했다.

경기 총결산 야코브와 폴리나는 극동지역 대표팀 선수로 선발되어 다른 섬지역 댄스 커플인 예게니 모체닌과 다나 스피치나와 함께 연방구 팀컵에 참가한다. 경기는 러시아 오픈 챔피언대회와 선수권대회의 일환으로 10월 22일부터 30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진행된다고 사할린주스포츠청소년정책부는 전했다.

### Сахалинская танцевальная пара завоевала серебро на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оревнованиях в Москве

В Москве завершились традиционные международ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танцевальному спорту "Динамиада-2017", в рамках которых состоялись турниры серии WDSF Open. Соревнования проводятся под эгидой Всемирной федерации танцевального спорта.

Честь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на этом турнире защищали воспитанники танцевального клуба "Данс-Класс" Яков Предко и Полина Астахова.

Сахалинская пара дважды выходила в финалы и в результате заняла четвертое место в европейской программе танцев и второе — в латиноамериканской программе.

По итогам соревнований Яков и Полина включены в состав сборной команд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отправлены на Кубок команд федеральных округов, где вместе с другой островной танцевальной парой — Евгением Мошениным и Даной Спицыной представляют регион. Соревнования пройдут в Москве с 22 по 30 октября в рамках открытых чемпионатов и первенств России,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и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코르사코브에서 주 삼보경기대회 개최

10월 21일 <플라그만>스포츠단지 건물에서 제20회 코르사코브 삼보 유소년 사범 기념 주삼보경기대회가 진행되었다. 대회는 사할린스포츠청소년정책부와 사할린주삼보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코르사코브시 행정부가 협찬했다.

본 경기를 개최하는 동안 이번 경기에 238명의 기록적인 수로 유소년 선수들이 (유즈노사할린스크, 코르사코브, 아니와, 홈스크, 돌린스크, 노글리키, 티몴스코예와 코스트롬스코예의 8-14세의 학생들) 참가했다.

많은 어린 선수들에게는 이번 경기 출전이 첫 데뷔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긴장감을 잘 이겨내고 좋은 경기를 보여주었다. 선수들 중 일부는 수상하기도 했다. (8면에 계속)

소감문

내 인생을 바꾼 사할린에서의 두 달

"러시아 사할린, 사할린 한인, 사할린 동포."

부끄럽게도 나는 이 사업에 지원하기 전까지 사할린 한인뿐만 아니라 사할린이라는 지역조차 잘 알지 못했다. 그러나 이곳 사할린은 내 인생의 변화를 가져왔고 그래서 지금부터 사할린에서의 두 달 동안의 이야기를 나누려 한다.

사할린에 오기 전, 이곳에 대해 공부를 하긴 했지만 여전히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낯선 도시 사할린에서 잘 지낼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부터 앞섰다. 그러나 사할린에 도착한 후, 걱정과는 달리 파란 하늘과 맑은 공기를 보고 마시며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는 생각을 했고, 이내 잘 지낼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은 사라졌다.

나는 이곳 사할린에서 한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고 계실지 궁금했다. 그 궁금증은 사할린 주 설립 135주년 행사 때 사할린 한인들을 만나면서 해소할 수 있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든 한인들은 예쁜 한복을 입고 한국에서 온 우리를 맞이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꼭 잡으며 잊지 않고 와 줘서 고맙다고, 한국교육원으로 한국어를 공부하러 가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이렇게 그들은 이 땅 사할린에서도 한인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었고 그런 모습에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분들을 지금까지 모르고 살아 왔다는 것이 너무 죄송했다. 그 이후, 나는 이곳에 있는 두 달 동안 진심을 다해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이분들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우리는 사할린한국교육원, 코르사코브 한글학교, 코르사코브 제2학교와 제4학교, 유즈노사할린스크 제2 김나지야, 제9 동양 김나지야, 루고워에 제30학교 등에서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쳤다. 내가 그 학교에 가서 놀란 점은 한인뿐만 아니라 러시아 학생들도 한국어를 너무 배우고 싶어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모든 학생들은 초롱초롱 빛나는 눈으로 하나라도 더 배우고 싶어 했다. 이런 모습을 보며 너무 고마웠고 또한 내가 그들에게 한국어를 알려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나는 모든 실습 중에서도 사할린 한국교육원에 모여 수행한 '멘티-멘토'프로그램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이 프로그램은 한 멘토당 최대 5명의 멘티가 한 조를 이루어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에 한 시간씩 수업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는 그들을 말하기대회에 참가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이유는 학생들을 매일 만나며 개인적으로 안되는 발음들과 어려워하는 문법들을 알려 주면서 그들의 관심사를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행복했기 때문이다.

사실 내가 이 사업에 지원한 이유는 '앞으로 한국어 선생님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 때문이었다. 그렇게 나는 운명처럼 사할린에 왔고 두 달 후, 내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곳에서 함께한 한인과 러시아 학생들 덕분에 '한국어 선생님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행복하게 살 수 있어!'라는 확신으로 바뀌었다. 이 실습 지원 사업은 이렇게 나의 인생을 바꿔준 소중한 기회였고 누군가 이 사업에 대해 나에게 묻는다면 참여해 보라고 적극적으로 추천할 것이다. 나에게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준 모든 학생들에게 감사하고 또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국립국어원 및 인하대 사업단에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한국어 선생님으로서 부족한 나를 이끌어주신 경력교원 선생님들과 이곳에서 언제나 함께해 준 예비교원들에게 고맙다고 전하고 싶다.

국립국어원-인하대 사업팀  
예비교원 김주희

1937년 사할린 한인 중앙아시아 집단이주

- 새로운 정착지로 이주와 정주의 특징 -

진 울리야 (역사학박사, 사할린국립문서보관소)

장 원창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서울)

(전호의 계속)

이 후 곧바로 아프레샨은 다시 보고한다: 극동지방에서 온 어부 이주민들의 숫자를 정확하게 조사한 결과 카라칼파키에 총 2,000명의 어업종사자들이 내린 바, 이 중 500명 이상이 바닷가에서 온 어부들이다. 카라칼파키에는 전체 2,800명의 이주가 계획되어 있다. 주공산당과 소비에트인민위원회는 즉시 이주민의 밀집도를 고려한 카라칼파키 모든 구역에 이주민 일자리의 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기를 바란다. 이와 별개로 아랄해 유역의 500명의 어부들의 배치를 결정해 주길 바란다. 11월 5일과 6일에 아르시에서 카라칼파키로 가기 위한 아랄스키역으로 벌써 5 열차 1,388명의 어부들이 떠났다. 아랄해와 아무르 하류를 향해하는 늦은 기일을 고려하여 정주지에 이주민을 이동하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배치 일정에 대한 정보를 나에게 정기적으로 알려 주길 바란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주를 조직하는 사람들이 어업 콜호즈의 한인들(사할린뿐만 아니라 극동지방 한인까지)의 청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러 조치를 취하고 그들을 아랄해로 직접 나갈 수 있는 출구가 있는 카라칼파키 지역으로 정주시켰다.

카라칼파키의 한인들은 극동지방에서 501호 열차(60량객차, 358가구, 1,362명), 502호 열차(62량객차, 307가구, 1,412명), 503호 열차(67량객차, 366가구, 1,744명)로 이동하였다. 이들은 원래 아랄해의 구를렌으로 수상교통인민위원회의 기선으로 배치될 예정이었다. 재배치의 책임자는 우즈베크 공화국 인민내무위원회 직원 메에르 대위였다.

벌써 9월 말에 이주 담당자들은 아랄해 근처로 한인을 재배치하는 것에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 알마아타에서 내무인민위원회 자그보즈진은 모스크바 상부에 다음과 같이 보고를 하고 있다: "9월 29일 크즐오르다역에 2개의 열차 501호/ 601호(책임자 스페판케비치) 366가구, 1,744명, 505호(책임자 꾸셀스키) 81가구, 920명이 내렸다는 정보가 있다. 이외에도 주 샬리역에 503호 열차가 도착하였고, 다른 자세한 정보는 없다. 위에 열거한 모든 열차는 인민위원회 예조바 동지의 명령에 따라 카라칼파키와 호레즘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아랄해로 계속하여 갔다. 카자흐스탄으로 향하는 길 위에 있는 이 아르시는 한 열차도 지나가지 않았고, 하차도 없었다. 누구의 명령으로 열차에서 짐을 내렸는지, 이것을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지 곧바로 확인하고 알려주시길 바란다. 아랄해와 아무르강의 지난 달의 항해를 살피고 열차의 연착이 인민위원회의 지시를 이행을 어렵게 함을 고려하시기 바란다."

10월 6일 아랄해 기선회사 대리 따즈메도프는 메에르에게 해상으로 이동의 어려움을 경고하고 있다: "10월의 정해진 운항표에 따른 정확한 계산으로는 아랄해 기선회사는 최대 18,000명을 운반할 수 있다. 11월에는 강풍과 추위로 운반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11월에는 카라칼파키로 면화재배업자들의 공급으로 4만 톤의 화물을 운반해야 한다. 현재 아랄스크에는 8,000명의 사람들이 있고, 10월 7일 2,000명을 운반해야 한다. 모든 클럽과 선전실은 이주민이 차지하고 있다. 화물과 환자의 운송을 위해 2톤의 기름 배급을 위한 원유국의 명령을 바랍니다."

조금 후에 따즈메도프는 또한 메에르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기선의 이동을 위한 운항일정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아랄스크 기선회사는 본인이 첫 전보에서 요청하였던 자료를 요청한다. 이러한 자료없이 모든 준비 작업이 마비되고 이동의 적시성을 놓칠 가능성이 크다. 준비된 4대의 기선은 오늘 차례로 출발하였고 4일에 돌아온다. 이동을 위해서는 아무르다르스크 하천기선과 묶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딸드크에서 지체할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서는 본인과 만나야 할 과잉적재를 위한 소비에트인민위원회의 책임자가 필요하다."

10월 7일 메에르는 따즈메도프에게 답을 한다: "항해의 늦은 시일과 이주민의 수송과 이주 인원을 정하는 문제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카라칼파키 쾨그라드 구역에 이주를 계획된 5,000가구에서 2,000가구로 줄일 것을 결정한다. 구를렌으로는 변동없이 1,000명 이주한다. 1,000가구 혹은 5,000명은 식량과 가사도구 1,500톤을 가지고 딸드크까지는 아랄스크 기선을 타고 아콤 부두까지는 아무르다르스크 기선으로 옮겨탄다. 쾨그라드 부두로는 2,000가구 혹은 9,000명과 그들의 짐과 식량 2,500톤을 싣고 가며, 모든 이주민의 재이동은 10월 까지 끝나야 한다."

11월 3일 아프레샨은 모스크바에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11월 10일 극동지방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 마지막 한인 이주열차가 도착했다. 우리는 총 54열차, 16,307가구, 74,500명의 한인을 받았다. 카라칼파키로 가기 위해 아랄해와 아무르다리아에 옮겨타는 곳에 머무는 2,113가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배치되었다. (계속)

재외동포재단과 독립기념관,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을 위한 역사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재외동포에게 체계적 역사교육의 기회 마련

재외동포재단과 독립기념관은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을 위해 개발한 역사교육 콘텐츠를 미국 한글학교에 보급한다.

지난 4월 21일, 재외동포재단과 독립기념관은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을 위한 역사교육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글학교 역사수업을 위한 교육콘텐츠를 개발해왔다. 교육콘텐츠는 주제별로 역사수업을 위해 필요한 프레젠테이션, 교안과 같은 교수자료와 학생용 교재 및 교구로 구성되어 있다.

역사교육 콘텐츠는 체험형과 탐구형으로 총 5종이 있다. 체험형은 한국 역사를 학습하고, 제작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콘텐츠로 '대한민국의 상징, 태극기·무궁화·애국가', '자랑스러운 역사, 이순신과 거북선', '노블리스 오블리주, 이회영 6형

제', '대한민국의 영토, 독도' 등 4종이다. 탐구형은 독립운동가 안창호와 관련된 14개의 역사 자료를 살펴보면서 재미동포의 역사와 독립운동을 탐구할 수 있는 콘텐츠이다.

지난 8월, 양 기관은 미주한국학교연합회(KOSAA)와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에서 실시하는 한국어교사 학술 회의에서 콘텐츠 구성과 활용 방법에 대한 강의와 안내를 실시하였으며, 현지 교사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9월부터 재단 스테디코리안(<http://study.korean.net>)에서 온라인 접수·심의 결과 미국지역 122개교를 선정하였다. 교구재는 10월 현재 배부 중에 있으며, 선정된 학교에서는 올해 12월까지 한글학교 유·초·중·고교생 16,000여명을 대상으

로 역사교육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9월 제11회 세계 한인의 날(10.5)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분 후손들의 민족 정체성을 지켜 나가겠다. 한국의 언어·문화·역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함께 모국 초청 연수, 장학 제도, 청소년교류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한 만큼 이번엔 양 기관의 협력으로 만들어진 역사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이 재외동포들에게 우리 역사를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다.

향후 재외동포재단과 독립기념관은 현지 출생 동포 자녀들의 정체성 확립에 도움이 될 다양한 체험, 탐구형 역사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공동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 Константин Сек в шестой раз завоевал титул чемпиона област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завершился чемпионат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классическим шахматам. 28 участников определили обладателей медалей за девять туров по швейцарской системе.

География турнира включала в себя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Охи, Поронайска, Холмска и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ы. Среди них были экс-чемпионы области разных лет, призеры турнира, мастера ФИДЕ и кандидаты в мастера спорта. Всех сильнейших в этот раз собрать не удалось, но это обстоятельство ничуть не повлияло на боевой настрой шахматистов, которые порадовали болельщиков яркими комбинациями и неожиданными ходами.

За тур до финиша чемпионский титул (пятый подряд, а всего – шестой) обеспечил себе Константин Сек. Однако он не собирался почивать на чемпионских лаврах в заключительном туре, так как победа в нем могла обеспечить ему уникальный результат – 9 очков из 9 возможных.

– Я играл черными против Алексея Климшина. Мы разыграли защиту Бенони. Причем, соперник пошел на тот же вариант, который случился в моей партии с Дмитрием Ден. Опасаясь нарваться на дебютную «бомбу», я решил свернуть в сторону и избрал другой вариант с жертвой пешки. Алексей надолго задумался, что убедило меня в том, что этот острый вариант он не анализировал. А в нем нужна была точность, игра, что называется, ход в ход. Соперник ее не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 попал под сильную атаку и быстро проиграл,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партию, которая позволила ему набрать 100 процентов очков, Константин Сек.

Что нужно в шахматах для победы? Конечно, хорошо играть. Но – дело не только в этом. Известная шахматная притча гласит, что победителю «везет, как первому призеру». То есть, недостаточно знать теорию и хорошо считать варианты. Еще нужно заручиться поддержкой музы шахмат Каиссы.

С обоими слагаемыми успеха у Константина Сек в этот турнир все было в полном порядке. Он и сам играл хорошо (точнее, очень хорошо), и удача ему благоприятствовала. В партии с Денисом Син соперник сдался, не увидев этюдное спасение, которое, будь оно исполнено на доске, вполне могло претендовать на приз за самую красивую партию. Но и это еще не все!

– Мне очень сильно повезло в партии с Акылбеком Кадыровым. Я видел за него вариант, приводящий к форсированному выигрышу. Хорошо, что соперник его не нашел. Имея сильнейшую атаку, он избрал не самое острое продолжение, позволил мне перевести дух. И в дальнейшем уже я, пожертвовав ладью, развил матовую атаку, – рассказывает Константин Сек.

Вот так и получается, что сильная игра + везение = суперрезультат (9 из 9). Помимо осознания того, что он вписал свое имя в историю островных шахмат, Константин Сек может быть доволен и прибавкой в рейтинге.

– Прибавка составила 13 пунктов ЭЛО. И теперь мой рейтинг равняется 2478 пунктов, – уточнил Константин.

Что же, до знакового рубежа в 2500 пунктов осталось не так уж много победных партий. А учитывая, что до конца года будут и другие турниры, возможно, что мечта шахматиста превратится в реальность уже совсем скоро.

Второе место занял Дмитрий Ден. Чемпион области 2008 года набрал 7,5 очков. В каком-то другом турнире этого вполне хватило бы для первого места. Да и вообще, это результат, которым можно гордиться. Увы, но в этот раз для победы его оказалось недостаточно.

Третьим финишировал Денис Син (7 очков). В заключительном туре он играл со своим непосредственным конкурентом на бронзу Игорем Чернцовым (черные). Задача Игоря была крайне сложной. Ведь его устраивала только победа. Как ее добиться черными? Выбор пал на Волжский гамбит. Однако для Дениса Син этот дебют не стал сюрпризом. Забрав пожертвованную пешку, он удержал материальное преимущество и добился победы. Один из самых многообещающих молодых шахматистов становится призером мужского чемпионата области третий год подряд.

По 5,5 очков набрали Игорь Чернцов, Акылбек Кадыров, Виталий И, Олег Верещагин. Именно в таком порядке их расставили беспристрастные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коэффициенты. В ТОП-10 также пробились Вячеслав Тимохин, Алексей Климшин и Ри Ян Чун (по 5 очков).

(Пресс-центр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и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В Холмском районе представили документальный фильм о трагедии в деревне Мидзухо

В Доме культуры села Правда состоялся премьерный показ документального фильма о трагедии в деревне Мидзухо префектуры Карафуто, произошедшей летом 1945 года. Группа японских граждан жестоко расправилась над

никла после акта вандализма, совершенного нынешним летом на мемориале, установленном в память о погибших у села Пожарского.

В основу фильма легли архивные документы и кадры кинохроники того времени, а также книга са-

ва администрации Холм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Андрей Сухомесов, депутат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Артём Круглик, председатель холм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ак Ен Сун, начальник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го



односельчанами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В ходе резни погибли 27 человек. Ныне это территория села Пожарского Холмского района.

Представленный фильм стал результатом работы творческой группы в рамках социального грант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группу вош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егиональной и мест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депутат облдумы Артём Круглик, а также менеджер Центрального дома культуры Сергей Яковенко, режиссёр фильма. Идея создания творческого проекта воз-

на халинского писателя Константина Гапоненко "Трагедия деревни Мидзухо". Главной идеей стала мысль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сохранять в памяти поколений страшные испытания, которые выпали на долю людей разных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в годы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чтобы никогда не допустить их повторения в будущем.

На премьеру фильма приехала группа студентов из Южной Кореи. Цель поездки молодых людей – знакомство с историей предков, насильственно переселённых на Сахалин в начале 20 века. Также на просмотре присутствовали гла-

управления села Правда Дмитрий Курикалов.

После просмотра фильма состоялось его обсуждение. А затем южнокорейские студенты пообщались со старшими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с жителями Правды за чашкой чая, сообщили в холм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мьера документального фильм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ится в субботу, 28 октября 13.00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сообщили в РООСК.

(Фото пресс-службы Холм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 Выставочная композиция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С лета в выставочном зале (2 этаж)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тала работать постоянная экспозиция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история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Над выставкой работали сотрудник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Ли Тин Сон (Евгения Михайловна),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исторического архи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ин Юлия, и студентка 4 курса ИФиИВ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Разуваева Татьяна.

Экспозиция основана на коллекциях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материал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исторического архи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музея, личных архивов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Экспозиция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планшеты с фотографической и текстовой информацией, а также предметы быта корейцев, традиционные музыкальные инструменты и одежду, книги и публикации о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ах.

Планшеты описывают историю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исторической хронологией – периоды II половины XIX в. – 1945 г. (российский Сахалин и японское губернаторство Карафуто), 1945–1991 гг. (советский период) и 1991 г. –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современность). Два планшета показывают зрителям трагедии в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 насильственная мобилизация японцами во врем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убийства корейцев в августе 1945 японскими националистами, разлученные семьи, отсутствие гражданства и связанные с этим трудност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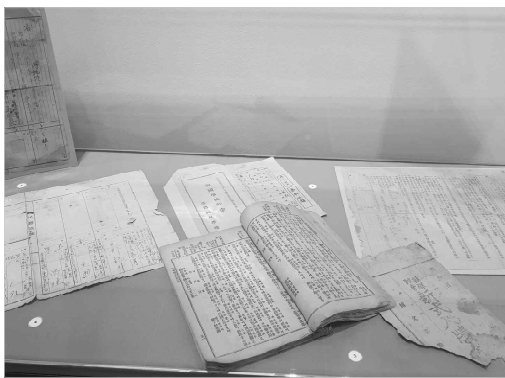
Пять планшеты презентуют посетителям корейскую культуру – изучение языка, традиционные танцы, песни, обряды жизненного цикла и другие культурные

национальные особенности. Были отмечены и те учреждения, которые прилагают важные усилия по сохранению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 обществен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школы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и не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детские сады и т.д.

Было уделено внимание и знаменитым людям сахалинской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 тем, кто внес и вносит значительный вклад в общественное движение, культуру, науку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К сожалению, помещение для выставки недостаточно большое. Не вся информация об известных людях, исторических фактах, предметы быта и культуры попали в экспозицию. Однако работа над ней не окончена, она должна и будет обновляться и, возможно, станет хорошей предпосылкой для создания собственного музея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ш корр.)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 Зажжён Огонь зимней Олимпиады в Пхёнчхане

24 октября в греческой Олимпии у руин храма Геры состоялась церемония зажжения Олимпийского огня. Эстафета его передачи на территории Греции продлится семь дней. Первым факел понёс местный спортсмен Апостолос Ангелис, греческий лыжник и биатлонист. Первым южнокорейцем, который понесёт огонь, является футболист Пак Чи Сон. 1 ноября огонь придёт в РК через Международный аэропорт Инчхон. После этого эстафета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в течение 101 дня по всей стране. В ней примут участие 7.500 человек. XXIII зимние Олимпийские игры в Пхёнчхане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с 9 по 25 февраля. Их слоган «Passion. Connected». Всего на зимних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ах будут разыгрываться 102 комплекта медалей.

## Чосон синбо»: Ведущий вуз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увеличит набор иностранных студентов

Ведущий вуз СК – университет имени Ким Ир Сена в Пхеньяне – планирует увеличить набор иностранных студентов, сообщила в субботу издающаяся в Японии пропхеньянская газета «Чосон синбо». Так, начиная со следующего учебного года иностранцы смогут поступать на учёбу по таким специальностям как экономика, общественные науки, включая философию, правоведение и история.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 университете обучаются около 100 иностранных студентов из 33 стран, в том числе, из Китая, России, Вьетнама, Франции, Монголии и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Они изучают корейскую филологию. Учебная программа рассчитана на четыре года. Для поступления необходимо успешно сдать экзамены, которым предшествует годичное обучение на подготовительном факультете Педагогиче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мени Ким Хён Чжика.

## А.Тимонин: Региональ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 основа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РК

Расширени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РК является основой расширения двусторонней торговли и инвестиций. Об этом, как сообщает ТАСС, заявил посол России в РК Александр Тимонин, выступая на комплексной презентации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потенциала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Посол отметил, что благодаря совместным усилиям по итогам первых восьми месяцев этого года двусторонний товарооборот составил около 12 млрд долларов, увеличившись на 47% по отношению к аналогичному периоду прошлого года. Он напомнил, что крупномасштабные задачи в области российско-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подробно обсуждались в ходе недавних переговоров лидеров двух стран на полях Восточ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 Права на показ фильма «Крепость Намхансансон» проданы в 28 стран

Права на показ нового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фильма «Крепость Намхансансон» (The Fortress) были проданы в 28 стран, в том числе в США, Японию, Францию, Сингапур и другие. Об этом 24 октября сообщили в медиакомпания CJ Entertainment. В США премьера фильма состоялась 6 октября в Лос-Анджелесе. Получив хорошие отзывы, 20 октября компания организовала показ картины ещё в 27 кинотеатрах страны. В ноябре фильм будет впервые показан на Тайване, а в июне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в Японии. Кроме того, «Крепость Намхансансон» демонстрируется на различны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фестивалях, в том числе в Лондоне, Франкфурте Париже.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23 октября, на 20-й день с момента премьеры, фильм в РК посмотрели около 3 млн 780 тыс. человек.

## Южнокорейцы используют интернет в среднем 4 часа в сутки

Южнокорейцы используют интернет в среднем 4 часа 14 минут в сутки. На это указывают данные, изложенные в докладе института экономики и управления при коммуникационной компании КТ. 25,9% абонентов компании используют интернет более пяти часов в сутки. Причём выяснилось, что женщины делают это на полчаса дольше мужчин. Наиболее активными пользователями сети являются представители возрастной группы от 30 до 40 лет – 5 часов 23 минуты. На последнем месте люди от 50 до 60 лет – 2 часа 50 минут. 95,1% всех пользователей чаще всего проводят время на различных порталах. 69,7% производят торговые операции, 60,6% знакомятся с новостями. Во время поиска какой-либо информации, мужчины наиболее часто интересуются новостями и спортом, а женщины популярными ресторанами, шопингом 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м контентом. Данное исследование проводилось среди тысячи человек старше 19 лет в период с 9 по 22 августа.

(RKI)

## Единение корейцев и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и

# МИРОВАЯ ОБЩНОСТЬ КОРЕЙЦЕВ: УТОПИЯ ИЛИ ВОЗМОЖНОСТЬ?

В истории человечества остались древние империи, объединявшие сотни разных племен и колониальные империи европейских держав, включавшие в себя обширные территории Азии, Африки и Латинской Америки. В новейший период мировой истории две супердержавы, Советский Союз и Соединённые Штаты Америки, пытались создать свои новые общности людей. Советский народ и американская нация при всем своем различии имели одну общую цель – формирование надэтнической метанации – единого народа, имеющего разное расовое, генетическое и цивилизационное происхождение.

Существуют две диаметрально противоположные точки зрения о метанации как надэтнической общности. Первая – отрицает таковую, приводя в пример неудавшуюся попытку формирования советского народа, который декларировался как надэтническое образование и новая единая совокупность всех народов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Провозглашенная единая американская нация, объединяющая иммигрантов из разных стран мира одним общим критерием – гражданство США, имеет множество названий-сравнений: «лоскутное одеяло», «миска салата», которые явно указывают на то, что «американский плавильный котел» не смог выварить однородную метанацию.

Согласно второй точке зрения в мире идет процесс формирования и развития метанаций: американской, китайской, русской (российской), корейской и т.п. Если с первыми тремя речь идет о надэтнической общности, то в случае с Кореей – о моноэтнической общности, объединяющей корейцев Севера и Юга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и всех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Такая моноэтническая метанация имеет, по всей видимости, больше шансов на существование.

На нашей планете проживают около 6 тысяч этносов. Все народы и нации современного мира можно условно поделить на численно крупные, средние и малые. К какой из этих трех групп относятся корейцы? Казалось бы, из-за малой территори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

ва, сложно предполагать, что корейский этнос относится к числу великим. Но статистика – железный аргумент, согласно которому корейцы входят в двадцатку крупнейших этносов мира, половину которых составляют азиаты, и только четыре европейских нации вошли в этот список.

Если обратить внимание на географию расселения, представленную в таблице флагами стран мира, то корейцы и здесь входят в топ-список, а следующая таблица дает более детальное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е распределение всей мировой совокупности корейского этноса. Данные таблицы демонстрируют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чрезвычайную концентрацию корейцев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где проживают порядка 95% общей численности, а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распыленность по всем континентам, регионам и странам.

Видимо по этой причине, российский философ Югай Герасим Андреевич отнес корейцев к так называемым супер-этносам, при этом не имея ввиду его расовое или этногенетическое превосходство, а его сверхэтнический состав. Суперэтнос (лат. super – сверх + греч. ἔθνος – народ) в пассионарной теории этногенеза российского ученого-мыслителя Льва Гумилева – этническая система, высшее звено этнической иерархии, состоящая из нескольких этносов, возникших одновременно в одном ландшафтном регионе, взаимосвязанных экономическим, идеологическим и политическим общением, и проявляющееся в истории как мозаичная целостность. В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и корейский этнос состоит из двух наций – граждан Северной и Южной Кореи, и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которых некоторые исследователи относят к так называемой «Третьей Корее». Поэтому Г.А. Югай, принимая суперэтнос как «союз народов или этно-

сов», приводит пример корейцев: «Да и одна нация, например, корейская, раздробилась на множество субэтносов как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так и на диаспоре, расселившиеся по всему миру. Корейцы уже давно перестали быть одной нацией».

В современном мире происходит противоборство двух тенденций: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 движения наций к независимости, созданию или сохранению национальных государств, а с другой – стремление к образованию крупных полиэтнических общностей, к формированию мощных супернаций. Поэтому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на карте мира, на месте рухнувшего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и стран Восточного блока появились, около двух десятков новых государств, а с другой происходит концентрация мощи супердержав и таких наднациональных альянсов стран как Европейский Союз, АСЕАН или БРИКС.

Появилась еще одна тенденция, имеющая целью создание супернаций на религиозной основе, к примеру, в мусульманском мире идет движение за создание «единого ислам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или «нового арабского халифата».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наиболее ярко проявляются первые две тенденции,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 сохранение двух национальных государств с различным 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им и экономическим строем,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 мечты и планы объединения страны, причем Единую Корею хотят как в Пхеньяне, так и Сеуле. Правда она видится разной, южнее и севернее 38-ой параллели, и сама концепция объединения тоже далека от консенсуса.

Но, как уже многократно и постоянно утверждалось мною в предыдущей рубрике –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и неизбежно. Оно неизбежно, если мы будем мерять время не пятилетками или десятилетиями, а иными категориями. В случае объединения Севера и Юга, возникнут реальные предпосылки для единения всех корейцев в мире и формирования корейской метанации.

**доктор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Герман Николаевич Ким,  
профессор кафедры истории,  
университета Конгук (Сеул),  
директор центра корееведения  
КазНУ им. аль-Фараби**



##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 새고려신문 살리자

###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본사 편집부)

## Подведены итог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январе-сентябре 2017 года

Объем валового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одукта, по оценке, составил 633,2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Это 102,3 процента по отношению к аналогичному периоду прошлого года. Объем промышлен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 544,4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или 104,2 процента.

Добыча нефти, включая газовый конденсат, составила 13,5 миллиона тонн. Это выше показателя января-сентября 2016 года на 2,6 процента. Добыча газа выросла на 6,4 процента. Она составила 22 миллиарда кубометров.

Угольные предприятия области добыли 6 миллионов тонн угля. Рост - в 1,4 раза.

Улов рыбы и морепродуктов (по данным СКТУ Росрыболовства) - 516,3 тысячи тонн, или 80,6 процента. Переработано 368,8 тысячи тонн, или 100,1 процента.

Выпуск продукции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за январь-сентябрь 2017 года составил 5,9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или 100,3 процента. Сохраняется рост производства мяса (на 15,3 процента) и молока (на 3,4 процента). Выросло поголовье крупного рогатого скота (на 8,8 процента), свиней (в 1,9 раза) и птицы (в 1,6 раза). Средний надой молока на одну корову увеличился на 13,4 процента. Валовой сбор картофеля вырос на 12,5 процента.

Индекс потребительских цен в январе-сентябре 2017 года к январю-сентябрю 2016 года (по данным Росстата) сложился на уровне 103,8 процента. Оборот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итания вырос на 10 процентов.

Среднемесячная заработная плата в расчете на одного работника, по оценке, в январе-сентябре 2017 года составила 68 тысяч рублей. По сравнению с январем-сентябрем 2016 года она увеличилась на четыре процента.

Уровень регистрируемой безработицы на 1 октября 2017 года составил 0,6 процента, что на 0,1 процентных пункта выше аналогичной даты 2016 года. При этом аналогичный показатель в среднем по России заметно выше. Он равен одному проценту. А по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у федеральному округу - 1,3 процента.

## В систему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области благодаря регион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е пришли пятьсот врачей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дведены промежуточные итоги реализации программы по привлечению кадров в учреждения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Она рассчитана до 2020 года. За это время планировалось трудоустроить 800 врачей и 1500 специалистов среднего звена. Однако основные меры поддержки врачебного персонала - выделение служебного жилья и подъемных средств - от 725 тысяч до 1 миллиона трехсот тысяч рублей, позволили привлечь в медицину намного больше кадров. За неполных четыре года трудоустроено уже пятьсот врачей.

Заявления от желающих прийти на работу в региональные учреждения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поступают ежедневно. В этом году со специалистами с высшим медицинским образованием уже было заключено почти сто договоров на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о. К примеру, в детскую поликлинику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были приняты 9 врачей: 4 педиатра, 2 лора, 2 окулиста и 1 акушер-гинеколог.

Одна из таких врачей - Наталья Пузынина. Девушка окончила хабаровский вуз. Выбирала из множества предложений, прежде чем остановиться на Сахалине.

Решение ехать на остров я приняла на 5 курсе. Специально просила ректора, чтобы направили именно сюда. Здесь все сошлось - и подходящий климат, и условия работы, и люди отзывчивые, неравнодушные. И что немаловажно, конечно, беспрецедентные меры поддержки. Изучая предложения в других регионах, я нигде не нашла, чтобы и подъемные давали, и служебным жильем обеспечивали. Теперь я могу полностью посвятить себя любимой работе, - поделилась Наталья Пузынина.

Сахалинская программа по привлечению медицинских кадров рассчитана не только на молод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но и врачей с большим опытом работы. Так, руководителями двух сахалинских центральных районных больниц стали жители Краснодарского края. Есть среди привлекаем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и кандидаты медицинских наук. Их приход позволил внедрить новые подходы в диагностической и лечеб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Меры поддержки по региональной кадровой программе привлекают специалистов из всех регионов. Насколько компетентен человек, из документов не всегда ясно. Поэтому с этого года мы обязательно каждому даем шестимесячный испытательный срок и делаем вывод, насколько этот специалист проявил себя с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точки зрения. Сахалину нужны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е, нацеленные на развитие специалисты. С неподходящими кандидатурами расстаемся без сожаления. По итогам такой проверки уже отселилось 15 человек, - рассказал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Пак.

В этом году нововведением сахалинской кадровой программы стало то, что теперь фельдшеры тоже могут рассчитывать на подъемные средства до 600 тысяч рублей. Благодаря данной мере поддержки удалось значительно снизить дефицит сотрудников в фельдшерско-акушерских пунктах и в службах скорой помощ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дан старт строительству аэровокз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Торжественная церемония закладки памятной капсулы в честь начала мероприятий по возведению новых воздуш-

ных ворот региона состоялась в сквер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го аэропорта.

Несмотря на сильный ветер и прохладную погоду, стать участниками исторического момента пожелали десятки людей. Это сотрудники аэропорта,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одряд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члены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 так далее.

- Сегодня мы являемся свидетелями исторического и долгожданного события! С этого дня начинается реализация проекта, приоритетного дл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читывая островное положение региона, воздушный транспорт играет важнейшее значение в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м развитии, - отметил в приветственном слове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остров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Александр Житков.

- Мы очень долго к этому шли, было непросто. Но как сказал один мой хороший друг-пилот, если перед рейсом как-то все сразу не задалось, задерживают вылет или что-то еще, то сам полет всегда проходит идеально. Я желаю всем, чтобы наш полет на пути к открытию нового аэровокз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был идеальным! - пожелал собравшимся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АО «Аэровокзал» Никита Полонский.

Как рассказа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омпании-подрядчика, общая площадь будущего трехэтажного здания нового аэровокз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составит почти 40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Терминал сможет принимать 550 пассажиров с внутренних линий и 250 человек с международных рейсов в час. Его построят севернее действующего аэровокзала, вблизи от перрона со стоянкой самолетов. Это защитит привокзальную площадь от частых ветров. Строительство объекта планируют завершить к осени 2019 года.

Прежде чем приступить к торжественной церемонии, архиепископ Южно-Сахалинский и Курильский Тихон провел освящение места закладки памятной капсулы. Затем все желающие смогли ознакомиться с текстом послания потомкам. В нем - призыв к будущим поколениям к дальнейшим шагам по развитию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проектов островного края.

## Тысячу лиственниц высадили на «Горном воздухе»

Экологическую акцию «Живи, лес!» провели сотрудники област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лесного хозяйства. К ним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представители других областных ведомств и воспитанники ДЮСШОР зимних видов спорта.

На горе Большевик высадили тысячу молодых лиственниц и несколько десятков кедров. Кроме этого работники Южного лесного хозяйства привезли на гору 50 саженцев деревьев лиственных пород - дуба, березы, клена, рябины и ореха.

Поддержал акцию и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атолий Макоедов.

- «Горный воздух» - знаковое место для сахалинцев. Подобные акции, безусловно, помогают сохранять экологию уникального объекта. Уверен, что спустя несколько лет наши потомки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будут приезжать сюда и гулять по новым рощам, - отметил он.

Подобную акцию министерство лесного и охотничьего хозяйства проводило в мае. На этот раз высаживать деревья пришло много школьников. Они внимательно выслушали инструкции, которые им дали сотрудники министерства, активно включились в работу.

- Очень хорошо, что сегодня сажать лес пришло много детей,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министр лесного и охотничье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Корнев. - Важно к проблемам экологии привлекать и подрастающее поколение, с детства прививать бережное отношение к природе. Сотрудники наших лесничеств регулярно проводят в школах уроки и лекции на тему экологии.

Специалисты отмечают, что данная акция направлена и на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леса, поваленного в ходе циклонов прошлых лет. Все лето лесной массив очищался от ветровалов, проводилось лесо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В Год экологии работы по озеленению затронули населенные пункты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х районов области.

## Сахалинцы стали участниками Всероссийской встречи с родителями по вопросам ЕГЭ и ГИА-9

17 октября состоялась Всероссийская встреча главы Рособорнадзора Сергея Кравцова с родителями. Встреча проходила в формате видеоконференции и транслировалась из Президентского зала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мультимедийного пресс-центра МИА «Россия сегодня» на официальном канале Youtube Рособорнадзора в режиме онлайн.

В прямом эфире с руководител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образования и науки смогли пообщаться родители Ярославской области, республик Крым, Алтай и Чечня. Также Сергей Кравцов ответил на вопросы, поступившие на почту Рособорнадзора и через аккаунт службы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На Сахалине трансляция встречи состоялась на базе гимназии № 2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о время Всероссийской встречи с родителями старшеклассников Сергей Кравцов рассказал об организации и проведении итоговой аттестации в 2018 году. Кроме этого,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он уделил вопросам значимости проведения всероссийских проверочных работ (ВПР), главная цель которых - обеспечение единства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поддержка реализации Федераль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стандарта.

В ходе встречи руководитель Рособорнадзора ответил на вопросы родителей, касающиеся изменений сис-

темы ЕГЭ, которые могут произойти в будущем. Сергей Кравцов рассказал, что устное собеседование по русскому языку в качестве допуска к ГИА-9 будет вводиться с 2019 года. Кроме этого, с 2022 года в число обязательных предметов на ЕГЭ добавится иностранный язык. «Он станет обязательным предметом на ЕГЭ для выпускников 11 классов с 2022 года. В 2018 году ЕГЭ по иностранному языку остается экзаменом по выбору», - пояснил Сергей Кравцов.

Во время общения с родителями глава Рособорнадзора также проинформировал участников мероприятия, что в будущем будет рассмотрен вопрос о переносе сроков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й на участие в ЕГЭ. Это связано с широким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м технологии печати экзаменационных материалов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в аудитории проведения ЕГЭ. «В этом учебном году срок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й на участие в ЕГЭ останется прежним - до 1 февраля», - уточнил руководитель ведомства.

Большинство род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их выпускников, которые стали участниками Всероссийской встречи с главой Рособорнадзора, отметили, что получили много новой и полезной информации.

«Самое главное, что во время общения с нами Сергей Сергеевич обратил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на роль семьи. Он сказал нам, что успех детей во многом зависит от поддержки родителей. Наша задача в период сдачи ЕГЭ поддержать своих детей, создать им благоприятную, комфортную и спокойную домашнюю обстановку. Я полностью с ним согласна», - поделилась своими впечатлениями Бойко Светлана.

Видеозапись встречи будет опубликована на канале Рособорнадзора в YouTube [www.youtube.com/watch](http://www.youtube.com/watch). Ответы на наиболее популярные вопросы, поступившие руководителю Рособорнадзора от родителей, будут размещены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Рособорнадзора и портале ЕГЭ в разделах «Часто задаваемые вопросы» и «Вопрос-ответ».

## Сахалинские медики проверили готовность к чрезвычайным ситуациям

Массовое поступление пострадавших, отработка действий в случае обнаружения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егиона особо опасной инфекции, например Эбола - алгоритм действий в таких ситуациях отрабатывали на днях сотрудники и руководител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учреждений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Плацидарм для отработки практических навыков - передвижной медицинский госпиталь. На сборку модулей по стандарту отводится 2 часа, на прогрев каждого из отсеков - еще 10 минут. Чуть раньше отведенного времени специалисты докладывают: «Готово!» и приступают к следующему этапу. В развертывании госпиталя специалистам помогают студенты медицинского колледжа. Для будущих медбратьев и фельдшеров - это практическое занятие, максимально приближенное к реальным условиям. В дальнейшем эти знания пригодятся в ходе изучения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й учебной дисциплины. Специалисты со стажем тоже принимают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 опыт работы в стационарной операционной и полевых условиях есть не у каждого.

- Госпиталь состоит из 5 блоков, все они изолированы. Для каждого блока свои задачи 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оборудование. Вот операционный блок, здесь имеются аппараты - наркозные, искусственной вентиляции легких, все, что требуется для экстренной реанимации больного, - объясняет директор центра медицины катастроф и мобилизационного резерва Наталья Беркутова. - Одновременно госпиталь может комфортно разместить 20 пациентов, в сутки пропускная способность - до 100 человек. Пр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можно нарасти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отсеки.

О том, что требуется от врача в условиях повышенной опасности, Наталья Беркутова знает не понаслышке. В 1995 году она принимала участие в спасении пострадавших в Нефтегорском землетрясении, в 2007 году - в Невельске. В последнем случае мобильный госпиталь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Натальи Беркутовой работал круглосуточно почти три недели, в журнале учета остались записи о помощи нескольким тысячам пациентов, многим из них требовалась и психологическая поддержка.

- Правильность действий в первые часы в чрезвычайной ситуации на 80-90% обеспечивает эффективность всего последующего лечения. Задача мобильного госпиталя - создать условия для перевода пациента на следующий этап лечения, привести его в состояние транспортабельности с наименьшими потерями для здоровья, - подчеркнула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Марина Гулевич. - Носилки, топчаны, аппараты ИВЛ должны быть всегда в состоянии боеготовности. Открытые границы, развитый туризм - это всегда элемент угрозы - бактериологической, инфекционной. В этих условиях все службы реагирования должны быть готовы.

На случай обнаружения особо опасных инфекций развернут отдельный модуль. Он имеет большую степень защиты по герметичности, собственную систему обогрева, подачи воды. Вход в помещение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через санитарный шлюз -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стерильности входящий сначала должен принять душ.

Главное преимущество мобильного госпиталя - его автономность, пр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он может быть развернут в любой местности, на территории любого учреждения. Подобные учения проводятся минимум 2 раза в год, в различных климатических и территориальных условиях.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한상 리더십 컨퍼런스, 4차산업·금융·학술·특별 세미나 등 특화된 비즈니스 네트워킹 프로그램 활발

전 세계 재외동포 경제인과 국내 기업인 3,50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여 네트워킹을 구축하는 한민족 최대 규모의 비즈니스 축제 '제16차 세계한상대회'가 25일 오후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성황리에 개막했다.

세계한상대회 이틀째인 26일에는 글로벌 성공 노하우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성과와 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활발히 진행됐다.

오전 10시 부터 진행된 <한상 리더십 컨퍼런스>에는 조성진 LG전자 부회장과 임지훈 카카오 대표이사가 연사로 나서 한상들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을 펼치고 성공 신화를 일궈낸 글로벌 경영 노하우를 공유했다.

두 번째 연사로 나선 임지훈 대표는 "일상의 모든 것에 호기심을 갖고, 더 나은 방법이 없을지 고민하며, 그것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혁신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믿는다"며, <Connect Everything-새로운 연결, 더 나은 세상>이라는 주제로 카카오의 성장 사례를 통해 강연을 진행했다.

오후부터는 <비즈니스 네트워킹 세미나>가 4차 산업, 금융, 학술, 특별세션으로 나눠 진행돼 맞춤형 정보 공유와 투자 전략을 논의했다.

<4차 산업세션>에서는 '인간을 이롭게 하는 새로운 변화,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 산업이 가져올 미래사회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등 미래사회에 대비한 비즈니스 전략을 논의했다.

세션은 김류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정책센터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문성기 OSEHRA

회장, 이민호 경북대학교 교수,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윤재호 에너지기술연구원 본부장이 발표자로 나서 헬스케어, 인공지능, 플랫폼 경제, 친환경 지속가능 R&D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이슈들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올해 처음 진행된 <금융세션>에서는 글로벌 한인 금융 공동체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의 현황 분석과 조언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고석화 뱅크오브호프 명예회장의 '미국 내 한인은행의 현주소와 성공을 위한 조건' 사례 발표를 비롯해 화상(華商), 유대인, 재일동포 금융 커뮤니티 사례를 통해 세계 금융의 현황과 발전상을 공유하고, 한인 금융시장의 해외 진출을 위한 한상 네트워크 활용 방안과 전문적인 투자 전략을 모색했다.

<학술세션>에서는 성공적으로 정착한 한상 사례연구를 통해 한상에 대한 국가 정책과 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한상기업사례 연구발표에서는 라오스의 코라오 그룹, 중국의 예지아 그룹, 인도네시아의 부사나 프리마 글로벌(Busana Prima Global)사, 미국의 플렉스핏(Flexfit) 성공 사례를 통해 대표 한상들의 해외진출 전략과 기업 성공 노하우를 공유했다.

극동지역 투자 전략 방안을 논의하는 <특별세션>에서는 주제 발표와 함께 주요 기업사례 발표, 향후 전망 등을 공유하며 신성장 동력을 모색했다.

한국과 러시아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투자 영역의 다변화를 통해 한국기업의 진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심화세션으로, 발표에 앞서 사회를 맡은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본부장이 '신북방정책과 한·러 협력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이외에도 박상남 한신대학교 교수, 박지원 KOTRA 연구위원, 장민석 유니베라 러시아 법인장 등의 발표로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정보 공유가 이뤄졌다.

세션 말미에는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이 극동지역 현황 및 전망과 함께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과제와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세션을 마무리했다.

<비즈니스 네트워킹 세미나>가 끝난 뒤에는 작년에 처음 신설돼 호평을 받은 <지역·국가별 밉글링> 프로그램이 진행돼 한상대회에 참여하는 지역별 참가자들이 다른 지역 참가자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러시아·CIS, 아프리카·중동, 중남미, 북미, 중국', '아시아, 대양주, 유럽' 등 3개의 그룹으로 분류해 세계 각지에서 온 한상들이 서로 명함을 교환하고,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등 폭넓은 교류를 이어가며 한상 네트워크 고도화를 이끌어냈다.

올해는 기업전시회 참가업체 중 9개사를 선정해 그룹을 돌며 자사의 제품을 홍보하는 '우리상품자랑전' 코너를 새롭게 선보였으며, 지역별 연합회 대표 소개 및 청중 개별 PR 시간을 확대해 참가자들 간 거리를 좁혔다.

비즈니스 상담회 역시 본격 가동됐다. 행사장 3층 기업전시회장에 마련된 350개의 부스에는 한상들의 발길이 이어져 꾸준히 상담이 진행됐고, 이날부터 진행된 일대일 비즈니스미팅도 하루 종일 활발하게 진행됐다.

(재외동포재단)

### Урок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Урок 25

### 너의 조국이 어디라고 생각하느냐?

(전호의 계속)

4. 다음 ( ) 안에 알맞은 말을 넣어 문장을 완성하세요.

(1) ( ) 고사하고 풀찌를 할까 걱정이다.

→

(2) 배불리 ( )고사하고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을 지경이다.

→

(3) ( ) 고사하고 전쟁이나 없었으면 좋겠다.

→

(4) 그 선수는 ( ) 고사하고 예선에서 떨어졌다.

→

(5) ( ) 고사하고 강제로 쫓아냈다.

→

5. 다음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1)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_\_\_\_\_

(2)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_\_\_\_\_

(3)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_\_\_\_\_

(4)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_\_\_\_\_

(5) 술의 종류를 막론하고 \_\_\_\_\_

### 읽기 연습 Чтение

※ 다음은 구소련 한인의 구천 가요를 통해 구소련 한인의 방언의 특징을 분석한 김병학 님의 글이다. 이 글의 요지를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 고려말의 특징

#### 1. 두음법칙

대부분의 재소고려인이 쓰는 말에는 두음법칙이 혼재되어 있다.

예: 로동자 → 노동자

#### 2. 'ㄱ' 곡용 또는 'ㄱ' 첨가

사할린을 제외한 구소련 전지역의 재소고려인들이 쓰는 방언에는 두루 'ㄱ' 곡용 현상이 나타난다.

예(1) 돌구다 → 돌리다, 딸구어라 → 따라라, 굶기 → 구멍

예(2) 남기 → 나무, 갈기 → 가루, 별기 → 별레, 별거지 → 버러지, 물개 → 모래, 질구다 → 기르다

#### 3. 'ㅂ' 불규칙 용언

재소고려인들이 'ㅂ' 불규칙 관형사를 격변화시켜 발음할 때 대개 'ㅂ'이 탈락하지 않고 규칙변화한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규칙변화하는 'ㅂ' 발음이 세대가 내려감에 따라 러시아어의 영향을 받아 러시아어 'B' 영어의 'V' 발음으로 변화하고 있다.

예(1) 즐겁은 → 즐거운 아름답은 → 아름다운,

귀여은 → 귀여운

예(2) 새비 → 새우

#### 4. 구개음화

러시아의 자음 Д와 Т(한국어의 'ㄷ'과 'ㅌ')가 모음 И와 Е(한국어의 'ㅣ'와 'ㅔ')를 만날 때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난다.

예(1) 상사지요 → 상사디요

애해야지야 → 애해야디야

예(2) 짐해 짐가 → 김해 김가 (성씨와 본관을 말할 때)

#### 5. 받침 'ㅇ' 발음의 'ㄴ' 발음 현상

러시아어에는 한국어의 받침 'ㅇ'에 해당하는 발음이 없다. 그래서 받침 'ㅇ'에 해당하는 모든 외국어의 발음이 러시아어로는 Н(한국어의 'ㄴ')으로 표기되고 발음되는데 그 영향을 받아 재소고려인의 구천가요도 부분적으로 받침 'ㅇ' 발음이 'ㄴ' 발음으로 변했다. 예(1) 연천아리랑 → 영천아리랑, 단초 → 당초, 존달새 → 종달새.

예(2) 칸 → 강, 멘 → 정, 쏜 → 송 (성씨)

(계속)

### 사할린한국교육원 행정 직원 채용 공고

#### 1. 채용 인원 및 담당 업무

가. 채용인원 : 1명(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음)

나. 담당업무 : 일반 행정, 한국어 통·번역, 한국어 교육 지원, 자료 관리 등

#### 2. 응모자격

가. 2017년 12월 1일부터 근무할 수 있는 자

나.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

다. 한국어 통·번역 가능자

라. 컴퓨터 활용 가능자(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

마. 공무 수행에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

#### 3. 근무조건

가. 근무기간 : 2017.12.1.부터 근무, 수습기간 3개월 후

근무 성과에 따라 재계약 (1년 단위)

나. 근무시간 : 09:00 ~ 18:00

#### 4. 제출서류

가. (필수) 한국어/러시아어 이력서 1부 (별도 양식 없음)

나. (필수) 한국어/러시아어 자기소개서 1부 (별도 양식 없음) \*사진 포함

다. (필수) 경력 증명서(졸업증명서 포함) 1부

라. (선택) 어학능력 및 컴퓨터 사용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마. 면접 통과자는 건강진단서, 범죄사실증명서를 제출

(내용에 문제가 있을 시 채용이 되지 않음)

5. 서류제출 시한 : 2017. 11. 24.(금) 18:00까지. \* 적격자가 없을 경우 기간 연장

#### 6. 서류 제출처(사할린한국교육원)

가. 제출 방법 : e-mail 혹은 직접 방문 접수

나. e-mail 주소 : joohwank@korea.kr

다. 문의처 : 50-56-96

7.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통과자에 한해 2차 면접 실시

(면접대상자는 서류 전형 통과자에게 개인적으로 통보함)

\* 제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이모저모

## (2면의 계속)

주최 측은 추가상도 수여했다. <승리를 향한 의지>란 상은 솔로마쎈 다니일, 레즈니코브 알렉세이, 폴로조브 니키타, <우수 기술>상은 피보와르치크 막심, 레즈니코브 일리야, 소지노브 미하일이 수상했다고 사할린삼보연맹이 전했다.

### В Корсакове прошел областной турнир по самбо

21 октября в здании спортивного комплекса "Флагман" в Корсакове прошел 20-й областной турнир памяти корсаковских тренеров среди юношей и девушек по самбо. Турнир был организован министерством спорта и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и федерацией самб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 поддержк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Корсаковского района.

В соревнованиях приняло участие рекордное за все время проведения турнира количество юных спортсменов — 238 человек — в возрасте от 8 до 14 лет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Корсакова, Анивы, Холмска, Долинска, Ноглик, Тымовского и Костромского.

Для многих юных самбистов выступление на этих соревнованиях были дебютом, но не смотря на это, многие из них справились с волнением и показали достойную борьбу, а некоторые даже стали призерами.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турнира были вручены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призы. Так, награду "За волю к победе" получили Даниил Соломатин, Алексей Резников, Никита

Полозов, "За лучшую технику" — Максим Пивоварчик, Илья Резников, Михаил Созинов, сообщает Сахалинская федерация самбо.

### 노글리키폰항 근처, 출몰한 곰 사살

10월 26일 9시경 노글리키폰항 부근에서 헤매고 다니던 성인 곰(5세 정도)을 사살했다. 현지 산림청 측에서 얘기한 바에 따르면 곰은 사살되기 2시간 전에 목격되었다. 곰은 상당히 큰 편이었지만 좀 마르고 발톱에는 상처가 있었다고 했다.

곰을 사살하게 된 이유는 가끔 노글리키 부락에 출몰해 인가와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때문이다. 산림청 전문가들이 올해 이 구역에서 사살한 곰의 수는 약 10마리가 된다고 했다. 이러한 수치는 노글리키 시내구역으로서 매우 높은 수치다.

### В районе аэропорта Ноглик вынужденно отстрелили медведя

Взрослого медведя (на вид лет пяти), который бродил в районе аэропорта Ноглик, убили 26 октября около 9:00. Как рассказали в местном лесничестве, животное заметили за два часа до отстрела, оно было достаточно крупное, но худое и с пораненной лапой.

Причиной отстрела медведя стало то, что он уже периодически заходил в поселок городского типа и приближался к жилым домам. Специалисты отмечают, что количество убитых в этом году в районе животных приближается к десяти — это очень высокий показатель для Ноглик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사할린주 및 한국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 글짓기 공모

새고려신문사는 글짓기 공모를 개최합니다.

• **취지:** 한민족의 긍지와 동포애를 고취시키고, 민족전통문화 대한 자랑과 보람을 일깨우기 위함이다.

• **공모대상:** 사할린 동포

• **공모부문:** 체험수기 (후기 - 소감 등)

• **입상자 수:** 3명 (상금)

• **공모주제(테마):** 올해부터 추진된 2-3세 모국방문에 대한 소감, 작년부터 추진된 1세대 동포의료검진에 대한 후기 또는 소감. 한글과 러시아어로 가능.

• **공모기간:** 2017년 12월 20일까지. 우수작은 새고려신문에 게재.

• **주최:** 사할린 새고려신문사

## 노루의 사향을 팝니다!

г. Иркутск, тел. : 8-924- 544-70-82

e-mail : she.xiang@yandex.ru

ООО «МУСКОН - СОБОЛЬ»

реклама

## ЕДА.САХ.КОМ

СЕРВИС ЗАКАЗА ЕДЫ



Наш сервис объединяет БОЛЕЕ 50 ЗАВЕДЕНИЙ



Мы передали БОЛЕЕ 100 000 ЗАКАЗОВ



Сервисом пользуются БОЛЕЕ 25 000 ПОЛЬЗОВАТЕЛЕ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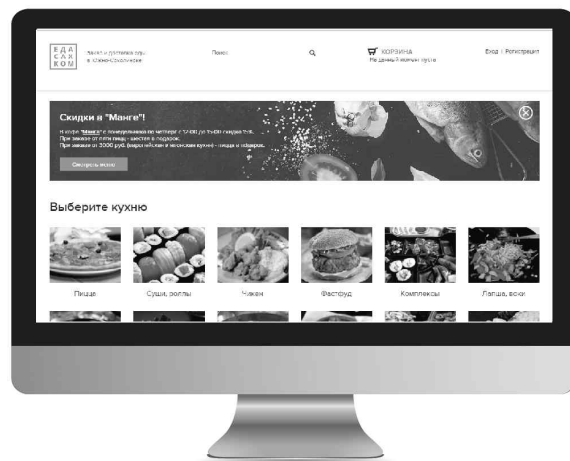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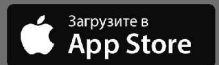
Помогут сделать выбор БОЛЕЕ 5 000 ОТЗЫВОВ



ЗАСТРЯЛИ В ПРОБКЕ?

ПРОСТО НЕ УСПЕЛИ ПОЕСТЬ?

Ставь приложение **eda.sakh.com**



РЕШИЛИ ПЕРЕКУСИТЬ В ОФИСЕ?

ЛЕНЬ ГОТОВИТЬ?

Просто заходи на сайт **eda.sakh.com**



УДОБНАЯ РАЗБИВКА ПО КАТЕГОРИЯМ



СКИДКИ И АКЦИИ



ЛЕГКО ПОВТОРИТЬ ЛЮБОЙ ВАШ ЗАКАЗ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장(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mailto: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4: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